

2009 세계 천문의 해



IYA2009 한국조직위원회는 국제 공동프로젝트 외에도 '병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'와 같은 작은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국내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있다. 4월 한 달 동안 펼쳐진 이벤트들을 살펴보고, 5월에는 어떤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엿보기로 하자.

100시간 천문학

100시간 천문학은 2009 세계 천문의 해를 대표하는 행사로서, 4월 2일부터 5일까지 지구촌 곳곳에서 열렸다. "80대 망원경의 세계일주"는 지구가 한 번 자전하는 24시간 동안 허블우주망원경 등 전 세계 90대의 첨단 망원경이 시간대별로 참여하는 인터넷 생중계 이벤트이다. 국내에서도 천문학과 또는 우주과학과가 설치된 국내 7개 대학과 국립중앙과학관, 국립과천과학관, 20여 개 시민천문대와 청소년수련원, 교육과학연구원이 참여하여 IAU 공식 다큐멘터리 상영, 천문학자 강연, 달·행성 관측, 별 개수 세기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진행했다.

▶ 4월 2일 캠퍼스 별 축제

경북대학교에서는 '태양이라는 이름의 별'의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했다. 음악과 함께 태양의 영상이 어우러져 색다른 강연이 펼쳐졌다. 연세대학교에서는 망원경 조립을 직접 해 보려는 중·고등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. 천문학이 대중화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소망이 담긴 쪽지도 전해졌다.

▶ 4월 3일 시민천문대의 밤

대전시민천문대에서는 친구, 연인, 가족들이 함께 별 관측을 하는 행사에 참여했으며, 박석재 원장의 '한국천문학의 미래'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천문학의 현 실태와 위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강연도 이루어졌다.

▶ 4월 4일 과학관의 밤

국립과천과학관 입구에는 성운, 은하 등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다. 광장 입구에서는 '손으로 만드

는 천문학'이라는 이름의 보현산 천문대, KVN 전파 망원경 모형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. 과학광장 오른편에는 태양을 관측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, 플라네토리움에서 김성희 피아니스트의 '천상의 오디세이' 연주를 통해 청각으로 우주를 감상하는 이벤트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.

▶ 4월 5일 거리의 별 축제



전국에서 열린 거리의 별 축제에서는 야경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에게 배율이 다른 각양의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별자리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했다. 남산NT워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찾아와 축제를 함께 해 규모는 작지만 뜻 깊은 행사가 진행되었다.

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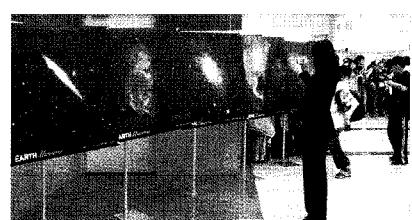
2009년 4월 3일부터 중·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"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"라는 제목의 천문



학 강연 프로그램을 시작했다. 현재 서울지역의 천문학자(대학교수와 연구원)들이 연사로 참여하고 있다. IYA2009 한국조직위원회 교육분과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채종철 교수는 "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강연신청에 놀랐다. 하반기에 확대 실시할 경우, 얼마나 더 많은 학교에서 요청할지 벌써부터 기대 반, 걱정 반"이라고 말했다. 조직위는 2009년 전반기에 시범적으로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강연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.

세계 천문의 해 기념 학술대회

IYA2009 한국조직위원회는 한국천문학회, 한국우주과학회와 함께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2009 세계 천문의 해 기념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. 이번 대회는 IYA2009 특별세션, 대형마젤란망원경 특별세션을 포함해 총 18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다. 대회 첫 날인 4월 28일, 우주인 고산 씨를 초청해 오후 2시 30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어울림 홀에서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대중 강연회를 열었다. 29일에는 연세대학교 이명현 박사의 '우주의 탄생과 미래', 30일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최영준 박사의 '명왕성 태출사유' 등 대중강연이 열렸다. 그리고 학술대회를 기념하여 IYA2009 지구에서 보는 우주(FETTU) 천체사진을 로비에 전시했다.



5월 2009 세계 천문의 해 프로그램 알림

프로그램	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	지구의 월(TWAN) 천체사진 전시회	'지구에서 보는 우주'(FETTU) 천체사진 전시회	병실에서 마음의 별을 찾다	천문학과 물학의 만남 천문학자와 천문학자 워크숍	천문학, 영화에 빠지다	캠퍼스 별 축제
개요	중·고생들을 대상으로 "교실에서 천문학자를 만나다"라는 제목의 천문학 강연 프로그램	전 세계 명소와 시적지에서 촬영한 해, 달, 별 등을 사진과 영상물로 제작, 전시하는 프로젝트	행성과 혜성, 별, 은하 등 우주의 다양한 모습을 담고 있는 사진을 제작하여 전시하는 프로젝트	천문학과 디자인 운동 프로그램을 연계해 병원 환자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젝트	작가들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천문학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프로젝트	우주관련 SF 영화를 주제로 상영하는 프로젝트	대학생들의 열정과 기습 속 우주를 깨우기 위해 기존의 틀을 벗어난 색다른 기획의 별 축제
장소 일정	서울 7개 중·고교 5월 1일(금)~30일(토)	의정부과학도서관 5월 1일(금)~3일(일)	양평국제천문대 5월 2일(토)~6일(수)	서울 연세대학교 4월 28일(화)~5월 5일(화)	보현산천문대 한국천문연구원 본원 5월 19일(화)~21일(목)	대전문화산업진흥원 5월 7일(목)	전국 10개 대학 5월 11일(월)~29일(금)